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b>FAITH WISDOM ACTION</b></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토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탐구”

넷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몸의 안락 추구하지 않는 사람

자기 조화 이루고,  
 알맞게 먹고 절식하며,  
 덕을 쌓고, 믿음의 힘 기르네.  
 이러한 사람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유혹에 빠지지 않네.

But he who lives not for pleasures, and whose soul is in self-harmony, who eats or fasts with moderation, and has faith and the power of virtue – this man is not moved by temptations, as a great rock is not shaken by the wind.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 부처님 탄생 7 가지 궁금증

5 월 24 일(음 4.8)은 불기 2551 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오늘날 불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날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날이 분명하다. 지금부터 부처님 탄생에 얽힌 7 가지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 보자.

### ① 언제 태어났나?: 기원전 624 년 추정...지역 따라 연도 날짜 달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불기(佛紀)다. 올해가 불기 2551 년 즉, 부처님이 입적하신지 2551 년이 지났고, 부처님이 80 세에 입멸했다는 설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기원전 624 년에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방.북방 불교마다 내려오는 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추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날로 정한 음력 4 월 8 일은 진짜 부처님 생일이 맞을까. 안타깝지만 4 월 8 일도 역시 하나의 ‘설’이다. 남방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서는 인도력으로 2 월인 바이사카월 보름에 태어났다고 믿는데 인도력 2 월은 지금의 4~5 월에 해당한다. 또 <불본행집경> 7 권, <과거현재인과경> 1 권에서는 2 월 8 일을 주장하고, <서역기> 6 권 등에서는 3 월 8 일 또는 3 월 15 일을 부처님이 태어난 날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은 음력 4 월 8 일을, 일본은 양력 4 월 8 일을 부처님 오신날로 여긴다. 이는 <태자서용본기경> 상권, <불소행찬> 1 권 등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날이 서로 다른 이유는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1 월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 ② 어느 나라 사람인가?: 석가족 지배하던 히말라야 남쪽 카필라바스투

우리나라 사찰에 모셔진 불상을 보면 한국 사람 같고, 중국 사찰에 봉안된 불상을 보면 중국 사람 같은 부처님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북인도의 히말라야산 남쪽에 위치한 카필라바스투였다. 이곳은 오늘날 네팔의 타라이 지방에 속하는 지역이다. 그 무렵 인도 북부에는 석가족 외에도 리차비, 말라 같은 공화국 형태의 국가와 마가다, 코살라, 바차, 아반티 같은 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카필라바스투는 석가족이 지배하던 곳이다. 석가족의 부처님은 카필라바스투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카필라바스투의 왕인 아버지 슈도다나(淨飯王)와 마야 왕비의 아들로 태어난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바라문으로부터 “가정생활을 하면 전륜성왕이, 출가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 바라문의 예언대로 그는 왕자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출가했다. 한 나라의 왕이란 자리도 부처님을 세간에 주저앉히지 못한 것이다.

### ③ 룸비니 동산은 어떤 곳?: 마야부인이 無憂樹 잡고 부처님 낳은 ‘성지’

당시

인도에는 친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다. 출산을 앞둔 마야부인 역시 아이를 낳기 위해 고향인 데바다하로 향했다. 카필라 성을 나선 그녀는 성 동쪽에서 50 리쯤 떨어져 있던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다. 부처님 생애를 노래한 <붓다차리타> 에서는 룸비니 동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 룸비니의 훌륭한 동산 흐르는 샘물 있고 꽃과 열매 우거지고 한가하고 고요하여 선사(禪思)하기에 알맞기에 거기 나가 놀기를 왕에게 청하였네.” 고요한 숲에서 잠시 쉬려고 동산에 들어선 왕비는 무우수(無憂樹, 근심이 없는 나무)가지를 붙들고 서서 오른쪽 옆구리로 아이를 낳았다. 그 때 범천과 사천왕이 내려와 부처님을 받아 인간에게 건넸다. <붓다차리타> 에서는 이 순간을 “때는 사월도 팔일 맑고 화한 기운 고르고 알맞은데 그는 재계하고 깨끗한 덕 닦았기에 보살은 오른쪽 옆구리로 나셨도다 큰 자비는 온 세상을 건지려 하였기에 그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나니”라고 노래하고 있다. 한편 기원전 3 세기 무렵, 아소카왕은 부처님 탄생으로 성지가 된 룸비니 마을의 세금을 면제한다는 글을 석주를 남겨놓기도 했다.

### ④ 왜 옆구리로 태어났을까?: 석가족 속한 무사계급 크샤트리아 ‘출생처’ 상징

<인과경> 에서는 부처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동산 안에는 무우수(無憂樹)라는 큰 나무가 있었다. 비(妃)가 오른손을 들어 그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보살은 그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다.” <대장엄경> 이나

〈본행집경〉에서도 우협출생(右脇出生)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남방에 전해지는 부처님 전기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실 옆구리 탄생은 당시 인도사회 신분제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성직자인 바라문과 무사계급인 크샤트리아, 평민계급인 바이샤와 천민인 수드라 등 4개의 계급으로 신분을 나누었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 태어나는 곳을 구분했는데, 수드라는 인류의 원 조상격의 인물인 푸루샤의 발바닥에서, 바이샤는 다리에서,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브라만은 입에서 태어난다고 믿었다. 부처님 역시 무사계급 크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인 마야 왕비의 옆구리에 태어났다고 묘사된다. 그것은 출가하기 전의 고타마 싯다르타는 무사가문인 석가족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제왕절개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제왕절개를 해서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난 것이고 마야부인은 절개로 인한 출혈이 멎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태어나자마자 외친 말? : “천상천하 유아독존” 참뜻, ‘스스로 깨달음’ 자기선언  
 부처님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동서남북으로 각각 일곱 발자국씩 걸어갔다.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을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삼계개고아당안지(三界皆苦我當安之).” 부처님 탄생계로 잘 알려진 이 말은 ‘천상천하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해매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람들에게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기억되는 이 외침은 요즘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드러낼 때 자주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본심을 외면한 것이다. 부처님은 탄생계에 모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안내하겠다는 서원을 담았다.

⑥ 원래 이름은? : 출가전엔 고타마 싯다르타, ‘모든일 뜻대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을 불타(佛陀) 혹은 붓다(Buddha)라 부르는 것은 그가 깨달은 사람(覺者)이기 때문이다. 사실 붓다는 깨달은 자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자이나교에서도 붓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부처님의 출가 전의 성은 고타마(Gautama)이고, 이름은 싯다르타(Siddhartha, 悉達多)다. 싯다르타라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 〈보요경〉과 〈광대장엄경〉 3권에는 “보살이 환성할 때 그들은 각기 문을 열고 ‘원컨대 천중천(天中天)이여 저희 궁전을 복되게 해주소서’하고 왕자를 찬탄해 은덕을 입었다. 이 인연으로 하여 살바싯다르타 즉 일체성리(一切成利)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

⑦ 가족관계는? : 이모 마하프라자파티는 ‘최초의 비구니스님’ 부처님의  
 아버지는 석가족의 왕인 슈도다나이며 어머니는 마야 왕비다. 그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여윈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왕자의 양육을 걱정하던 왕은 마야부인의 동생이자 싯다르타의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에게 아들을 맡긴다. 〈대장엄경〉 3권에 따르면 “슈도다나 왕이 누구에게 싯다르타 왕자를 맡길 것인지 걱정하자 주위의 사람들이 이모일 뿐 아니라 자애가 깊은 마하프라자파티를 추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사상 최초의 비구니스님이기도 한 마하프라자파티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던 싯다르타 왕자는 이후 이복동생을 얻는데 그가 바로 난다(難陀)다. 또 출가하기 전 싯다르타 왕자는 야소다라와 일가를 이룬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라훌라이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명이기도 한 라훌라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계율을 잘 지켜 밀행제일이라고 불렸다. 그가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바람에, 이때부터 교단에 사미제도가 도입됐다.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한 다문제일의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다. 또 부처님을 세 번이나 죽이려 했던 데바닷타와 아나올 등도 부처님과 사촌관계다.

### 육근을 잘 다스린 공덕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는 육근(六根)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수행자는 생각을 온전하게 해서 자기 몸을 닦아야 한다. 가야 하거나 머무르거나, 나아가거나 멈추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굽어보거나 우러르거나, 옷을 입거나 벗거나, 잡자거나 깨어나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고자 할 때 모두 때를 알아야 한다. 수행자가 만일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면 아직

생기지 않은 번뇌와 탐욕과 무명은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이미 생긴 번뇌와 탐욕과 무명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만일 생각을 온전히 하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잘 분별해서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섯 가지란 눈, 귀, 코, 혀, 몸, 뜻(眼耳鼻舌身意)으로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관념(色聲香味觸法)을 인식할 때 곱거나 좋은 것은 기뻐하고 추하거나 나쁜 것은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란 마치 여섯 가지 짐승이 그 성향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개, 여우, 원숭이, 물고기, 독사, 새를 잡아 밧줄에 묶어 한곳에 놓아두면 그것들은 각각 성향이 달라서 서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자 할 것이다. 즉 개는 마을로 달아나고 싶어 하고, 여우는 무덤 사이로 가고 싶어 하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고 싶어 하고, 물고기는 물로 가고 싶어 하고, 독사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새는 공중으로 날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여섯 가지 짐승은 단단히 한곳에 매어 두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여섯 가지 감각도 이와 같이 제각각 좋거나 나쁜 것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이 다르지만 그때 수행자는 그것을 한곳에 매어 둔다. 그렇게 뜻을 온전히 하여 어지럽게 하지 않으면 악마 파피야스도 침투할 틈이 없어서 어찌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수행자는 온갖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 이와 같이 공부해나가면 현재에 아나함이나 아라한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중일아함32 권 역품(力品) 제8경 -

수행자들 중에는 몸에 병이 생겨 고생하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육근을 잘 다스렸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감기가 들거나, 몸살 병에 걸린다 해서 그것을 수행과 연관시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불교의 수행은 도교의 양생술(養生術)과는 그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육체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절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육근(六根=眼耳鼻舌身意)은 늘 아름답고 즐겁고 향기롭고 맛있고 부드러운 것만 탐애한다. 중생은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나누려고 한다. 불교는 이런 생각에 반대한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행한다고 육체가 병들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일을 부처님도 못한다. 그렇다면 생로병사에서 해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현재의 삶에서 욕망과 줄이고 집착을 버림으로써 욕망의 불확충에서 오는 고통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것이다. 더 길게는 이로 인해 더 나쁜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반복하는 윤회의 조건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육근을 잘 다스린 공덕이다. 진정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 불교 신문에서 발췌 -

## 행복 찾기 팔만대장경이 제시한 네 가지 길

부처님의 지혜. 자비. 가피. 마음으로,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행복 ‘극복’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제 1 목적은 그 생명을 온전하게 부지하는 것이다. 아마도 가정하기로 들자면, 무생물 역시 자기 존재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을 제 1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어떤 존재도 자기 파괴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일체 존재의 제 1 목적은 존재 그 자체이다. 일단 존재가 확보된 모든 것들은 즉시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지향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자살이라는 행위도 사실 행복추구의 몸짓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죽는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다섯 가지가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재력, 권력, 지력(知力), 체력 등으로 대표되는 ‘힘’이 그 첫째일 것이다.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은 돈만 충분하면 틀림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는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즉 섹스다. 셋째는 맛있는 먹거리다. 우리는 맛있는 먹거리로 배를 채울 때 행복해 한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은 배부를 때 하는 말이다. 넷째 여가다. 우리는 잠자고 놀 시간적 여유가 넉넉할 때 행복해 한다. 일에만 내몰리며 행복할 수는 없다. 다섯째 명예다. 인간은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하고서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앞의 네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남에게 떠받들리면 행복을 느낀다. 한마디로 행복의 세속적 기준은 ‘재색식수명(財色食睡名)의 오욕락(五慾樂)’이다.

물론 우리가 이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들 다섯 가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들 다섯 가지가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불행을 호소한다. 이로써 느끼는 행복은 상대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복은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다. 아니, 이런 행복은 동시에 불행을 동반한다. 재부(財富)는 만드는 데서부터 지키다가 잃을 때까지 늘 고통과 불행을 몰고 다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불교 역시 행복 찾기가다.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들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 ‘열반’을 얻기 위해서였다.”(〈중아함〉, 권 56 라마경) 부처님은 자신의 출가 동기가 고통의 초극, 즉 행복 찾기였음을 누누이 강조하신다. 사실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그런 행복은 충분히 누리셨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것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며,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며,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그런 참 행복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행복을 찾는 방법이다. 그분의 후예들이 제시한 가르침까지 망라하여 정리한 팔만대장경은 모두 행복으로 가는 길에 관한 해명이다. 무척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지만, 팔만대장경이 제시하는 행복 찾는 길은 크게 지혜, 자비, 가피, 마음의 네 가지로 간추려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은 지혜, 즉 깨달음이라는 체험이 그리고 자비, 즉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실천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후예들은 가피, 즉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향한 기도가 그리고 마음, 즉 우리들의 마음 쓰는 방법과 자세가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역설하신다. 불교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 네 가지 길에 관한 구체적 해명이 될 것이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이달의 경전 공부

## 천 수 경

### 관세음보살 대비심으로 소원 성취

우리나라의 각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를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독송하는 경전이 하나 있다. 부처님께 마지(摩旨)를 올릴 때도 반드시 독송하는 이 경은 의례용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천수경(千手經)〉이다. 이 경은 불교 신앙의 주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밀교경전에 속한다. 〈다라니〉를 수지 독송케 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밀교 특유의 수행법을 제시해 놓은 경이지만 세속적인 원을 이루게 하는데도 이 경을 상용해 왔다. 이 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이다. 1 권으로 되어 있는 이 경은 당나라 때 가범달마(伽梵達磨)가 번역했으며, 이 밖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역자가 다른 3 가지가 더 있다. 불공(不空)이 번역한 것과 보리유지(菩提流志), 그리고 지통(智通)이 번역한 것이 있는데 모두 대정 신수대장경 20 권에 수록되어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손이 천 개 눈이 천 개인 관세음보살의 광대한 대비심에 의해 중생들의 소망이 성취되어 구경의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이다. 밀교에 속해 있는 경전들은 대개가 다라니를 설해 놓고 있다. 다라니(dharani)란 불.보살에 대한 염원 등을 함축하고 있는 경전의 어구.구절을 가리키는 말이나, 그 어원의 뜻을 밝혀 보면 모든 것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 있다. 비유하여 말하면 깨지지 않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서 새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역된 말로 총지(總持) 혹은 능지(能持)라 하며 또 능차(能遮)라고도 한다. 능차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 준다는 뜻이다. 이 다라니는 주술적 기능을 갖고 있다. 원래 다라니는 경전의 독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경전에 설해진 내용을 짧은 구절에 축약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하는 사변적인 말이 아닌 주술적인 능력이 내포되게 된 것이다.

〈천수경〉에는 대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중심이 되며, 그 외에 소다라니가 8 개 설해져 있다. ‘정구업진언’에서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개법장진언’, ‘참회진언’,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 진언’ 그리고 ‘준제진언’이다. 이들 진언은 각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술적 위력을 발휘하는 것들이다. 〈천수경〉 전체의 내용이 관음신앙과 관계된 것이므로 소진언 가운데서는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 진언’이 중요한 진언이다. 줄여서 ‘육자대명왕진언’이라 하는데 밀교수행자들이 지송하는 대표적인 진언으로 여섯 글자가 육도 윤회를 벗어나 생사해탈을 성취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천수경〉에는 불교 신행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 진언과 찬게(讚偈)로 이루어진 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의와 찬탄과 참회, 발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대의를 파악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일체 부처님께 귀의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보리심을 발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며 자리아타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세로부터 지어온 10 악을 비롯한 모든 업을 참회한다. 이 참회는 대승의 참회로 업의 성품이 공함을 통달해야 진정한 참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발원으로 이에는 보살의 이타정신이 악도에 가악도중생을 고통을 소멸케 하는 육향(六向)과 십원(十願)등이 설해져 있다. 아울러 이 발원은 대승의 회향정신으로 필경에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중생회향으로 귀착된다. <천수경>의 이 네 가지 뜻은 불교 신앙정서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봉축 기도

은 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정갈한 마음으로 향 사르며 공양하오니  
한 줄기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회상 상서롭게 장엄하여지이다.

저희가 무량한 세월 착한 인연 뿌리내려  
금생에 ‘부처님 만남’의 꽃 피웠습니다.  
이제 가냘픈 신심이나마 여린 가슴에  
초발심의 촛불되어 타오르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한 가지 중생을 청정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길 열어 보여 주시려는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신 그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 떨리는 감격으로 님을 맞사옵니다.  
크나큰 가피와 은혜 그 빛나는 만남 위해 기도하옵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심’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오락의 삶 속에 한 송이 하얀 연꽃  
피워내기 발원하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1년 5월 13일 (양력)에 칠일 기도를 입재 및 연등을 만들기가 있었고, 5월 20일에는 칠일 기도 회향 및 법요식을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신도님들의 협조하에 성황리에 일년 연등 공양 불사를 마쳤습니다. 소원성취 하십시오.

일년 연등 공양 기도 동참하신 불자님들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 가족등은 대주 이름만 올립니다.): 0 세계 평화 불사 원만 성취, 1번 계사생 백정수, 2번 계묘생 임경순, 3번 법련화 장태수, 4번, 정법안 조양임, 5번 정유생 박래경, 6번 무술생 백련화 김효례, 7번 기사생 박오뜸, 8번 신미생 박꽃별, 9번 무인생 박삿별 10번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11번 무자생 문병현, 12번 임인생 문병귀, 13번 계묘생 죽송 박준현, 14번 을미생 이상돈, 15번 무자생 김대원, 16번 무신생 위승림, 17번 기축생 김현웅, 18번 신유생 염옥희, 19번 임진생 조남국, 20번 무술생 현심행 김설아, 21번 갑자생 조민우, 22번 김대성, 23번 경진생 능공 신봉길, 24번 무인생 김순옥, 25번 정미생 황현식, 26번 기사생 김재수, 27번 갑오생 임현철, 28번 정축생 신숙우, 29번 정묘생 황보희, 30번 Lawson “Robinson, 31번 임임생 강효정, 32번 계유생 송의혁, 33번 갑술생 송민경, 34번 갑술생 이갑상, 35번 기묘생 김미형, 36번 계축생 조보영, 37번 을사생 이창우, 38번 계미생 김진혁, 39번 무자생 김진택, 40번 기미생 이현수, 41번 갑인생 전영아, 42번 갑술생 이주영, 43번 무진생 이수진, 44번 기축생 이유럽, 45번 계미생 이지영, 46번 갑인생 신재준, 47번 경술생 김두현, 48번 임자생 김두환, 49번 기미생 김지연, 50번 계미생 우미자, 51번 신사생 김태근, 52번 병술생 권기남, 53번 갑인생 김훈정, 54번 기사생 김지현, 55번 갑신생 정석영, 56번 갑인생 김희선, 56번 기해생 정 씨, 58번 갑신생 서정래, 59번 갑오생 이정숙, 60번 신축생 광영식, 61번 병오생 광효식, 62번 병오생 김태근, 63번 갑술생 김희령, 64번 무인생 김희현, 65번 을사생 이상현, 66번 무진생 이정훈, 67번 경자생 백조현, 68번 계묘생 노갑순, 69번 계유생 백정식, 70번 경오생 백지연, 71번 임신생 백재이, 72번 을묘생 김대훈, 73번 을묘생 김문희, 74번 임오생 김승민, 75번 을사생 김세환, 76번 을사생 김홍연, 77번 기유생 고승완, 78번 신묘생 홍성범, 79번 임오생 이건영,

80 번 경진생 박영찬, 81 번 을미생 나순자, 82 번 계해생 안진형, 83 번 경신생 안주현, 84 번 갑오생 안중재 ((John Ahn), 85 번 무술생 강운식, 86 번 임인생 김유미, 87 번 무진생 강희백, 88 번 경오생 강희재, 89 번 무자생 홍해식, 90 번 갑술생 김영자, 91 번 무오생 홍창민, 92 번 신묘생 홍주리, 93 번 신축생 김용직, 94 번 임인생 공은영, 95 번 갑인생 조영우, 96 번 병오생 홍대선, 97 번 무인생 현덕 홍준수, 98 번 경술생 청정행 정혜주, 99 번 무자생 우여곤, 100 번 정해생 김영목, 101 번 갑오생 배재현, 102 번 병인생 배진, 103 번 계축생 김종관, 104 번 을유생 김명환, 105 번 임진생 장경래, 106 번 갑오생 길상주 임태훈, 107 번 병오생 이찬혁, 108 번 Mark Frank, 109 번 기유생 심경수, 110 번 병오생 노덕복, 111 번 정해생 한복희, 112 번 계유생 Jack Benton, 113 번 정묘생 김윤택, 114 번 무자생 유종현, 115 번 경자생 유종구, 116 번 신해생 보광 이진욱, 117 번 계해생 대행 김근환, 118 번 정해생 고경환, 119 번 무술생 장홍호, 120 번 임인생 정진옥, 121 번 임인생 송완근, 122 번 신사생 김일권 (I. K. Kim Ja Be Ryu), 123 번 갑오생 허정석 (근일), 124 번 정축생 김야모, 125 번 을사생 송영찬, 126 번 경술생 김효진, 127 번 정축생 손명옥, 128 번 기묘생 손명은, 129 번 신사생 손명호, 130 번 을사생 최인협, 131 번 계사생 정귀자, 132 번 병신생 정순범, 133 번 경오생 정영환, 134 번 경인생 이봉호, 135 번 대법행 남일현, 136 번 기묘생 최춘희, 137 번 기축생 박종립, 138 번 정해생 배종상, 139 번 을미생 류영옥, 140 번 정유생 장용길, 141 번 이석정, 142 번 무자생 최문선, 143 번 임인생 차준옥, 144 번 임오생 김상수, 145 번 계묘생 정재분, 146 번 법일 박성경, 147 번 기해생 회현우, 148 번 병오생 김화숙, 149 번 갑인생 홍정임, 150 번 정미생 박해찬, 151 번 을미생 윤석배, 152 번 신축생 강경식, 153 번 갑진생 정장균, 154 번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음성 포교팀, 155 번 무오생 김정옥, 156 번 병오생 김명숙, 157 번 갑자생 노재준, 158 번 정유생 이용성, 159 번 계해생 이상준, 160 번 병자생 이진옥, 161 번 병자생 이태연, 162 번 을미생 한인복, 163 번 병인생 한승철, 164 번 정묘생 한정은, 165 번 갑오생 김삼술, 166 번 무신생 박종만, 167 번 기묘생 박지현, 168 번 경오생 최준혁 (최별), 169 번 경진생 김경희, 170 번 갑신생 이희영, 171 번 무신생 김태성, 172 번 계축생 수정화 이금주, 173 번 신사생 김준협, 174 번 갑술생 정해준, 175 번 계사생 박성현, 176 번 신해생 장준호, 177 번 김종윤, 유병희, 178 번 을축생 김기태, 179 번 계묘생 류용렬, 180 번 을사생 여여심 이인영, 181 번 계묘생 김두식, 182 번 계미생 강예자, 183 번 을사생 이한상, 184 번 기유생 이호상, 185 번 임인생 이명희, 186 번 무술생 박경훈, 187 번 계묘생 박영규, 188 번 경자생 박윤규, 189 번 병오생 박현규, 190 번 보배심 김태순, 191 번 병진생 이동엽, 192 번 경술생 장재혁, 190 번 박동훈, 194 번 갑진생 남궁진선, 195 번 임인생 이민중, 196 번 정미생 최원석, 197 번 무술생 임태철, 198 번 정각수, 199 번 선명, 200 번 무술생 김정훈, 201 번 정유생 정재한, 202 번 계유생 손순이, 203 번 기해생 정인순, 204 번 기사생 송재현, 205 번 기미생 이인섭, 206 번 임진생 전효장, 207 번 을사생 이준형, 208 번 갑술생 신광석, 209 번 정묘생 박일섭, 210 번 김효명, 211 번 신미생 박여름, 212 번 박태현, 213 번 무자생 목영옥, 214 번 기축생 선법장 윤선정, 215 번 신유생 목문석, 216 번 신사생 이재현, 217 번 정미생 박광수, 218 번 병오생 김효정, 219 번 을해생 박은지, 220 번 정축생 박병주, 221 번 무술생 김종학, 222 번 임자생 유행석, 223 번 정미생 이수경, 224 번 정유생 유인갑, 225 번 전순영, 226 번 을해생 유명호, 227 번 병자생 유명준, 228 번 병신생 양순영, 229 번 기해생 김창호, 230 번 임인생 박향덕, 231 번 신미생 김수정, 232 번 계유생 김준, 233 번 기유생 청운심 이정상, 234 번 을미생 김윤택, 235 번 도진 Brian Barry, 236 번 계미생 청공 문철휘, 244 번 정미생 이기윤, 245 번 경자생 이성연, 246 번 을사생 오영순, 247 번 임신생 이근제, 248 번 계유생 이근혁, 249 번 병오생 구은석, 250 번 기축생 이주희 .

일년 영가등 공양기도 동참하신 영가님들 : 1 번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불국사 복위), 2 번 남평후인 문정모 영가 (문병현 복위), 3 번 남평후인 문해경 영가,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남평후인 문길한 영가, 평산유인 신갑연 영가 (문병현 복위), 4 번 원주후인 변봉길 영가, 차씨유인 차용녀 영가, 원주후인 변응규 영가 (변정자 복위), 5 번 순응 유인 안금례 영가, 6 번 청풍후인 김유근 영가, 인동유인 장소녀 영가, 상산후인 김금진 영가 (김동희 복위), 7 번 금영후인 김명기 영가 (김미형 복위), 8 번 인천후인 이성용 영가 (이갑상 복위), 9 번 이씨 수자 영가 (김미형 복위), 10 번 남양후인 홍정표 영가, 천안유인 전병윤 영가 (심윤자 복위), 11 번 전주후인 이종구 영가, 제주유인 고성여 영가 (이건영 복위), 12 번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진학미 영가 (박수민 복위), 13 번 밀양 박씨 선망 조상 일체 영가 (박래경 복위), 14 번 파평유인 유상옥 영가 (김미형 복위), 15 번 제주후인 고씨 영가 (이수진 복위), 16 번 죽산후인 안창호 영가 (안중재 복위), 17 번 달성 배씨 조상 영가 (배재현 복위), 18 번 탐진후인 최치남 영가 (최문선 복위), 19 번 탐진 최씨 조상 영가 (최문선 복위), 20 번 차옥녀 영가, 김해후인 김원근 영가 (김현웅 복위), 21 번 김녕유인 김분조 영가 (이갑상 복위), 22 번 밀양유인 손씨 영가 (김미형 복위), 23 번 작은 외조모 영가 (김미형 복위), 24 번 외조모 청주유인 한씨 영가 (김미형 복위), 25 번 친구 양찬모 영가 (김미형 복위), 26 번 외조부 함안후인 조씨 영가 (김미형 복위), 27 번 김의식 영가 (김미형 복위), 28 번 김대겸 영가 (김미형 복위), 29 번 태종 영가 인천유인 이계묘 영가 (김미형 복위), 30 번 밀양후인 손순근 영가, 경주유인 최선봉 영가 (손영찬 복위), 31 번 밀양후인 손윤진 영가 (손영찬 복위), 32 번 밀양후인 손금용 영가 (손영찬 복위), 33 번 청송후인 심상준 영가 (심윤자 복위), 34 번 나주 정씨 일체 영가 (정순범 복위), 35 번 김해 김씨 일체 영가 (백련화 김효례 복위), 36 번 밀양 박씨 일체 영가 (박계영 복위), 37 번 수자령 영가

(박계영 복위), 38 번 김해 김씨 일체 영가 (김순옥 복위), 39 번 창원황씨 일체 영가 (황현식 복위), 40 번 이철우 영가, 정화자 영가, 이태편 영가, 여운숙 영가, 이진구 영가, 장동월 영가, 성주 이씨 영가, 해병 아저씨 영가 (이용성 복위), 41 번 신창석 영가, 재씨 영가, 신준 영가, 신원님 영가, 최창명 영가, 이지기 영가 (신숙례 복위), 42 번 문화후인 류인봉 영가 (류용렬 복위), 43 번 선망부모 유씨 일체 영가 (길상화 유기화 복위), 44 번 선망 부모 김씨 일체 영가 (김영목 복위), 45 번 해주유인 최선례 영가 (최송순 영가), 46 번 김진희 영가, 47 번 선망부모 이씨 일체 영가 (이지연 복위), 48 번 사천후인 묵문균 영가.

그 외 동참하신 영가님들: 캠탐슨 영가, 다케다 데이비드 영가, 인현이씨 일체 수자 영가 (이갑상 기부), 금녕김씨 영가 (김미형 복위), 인동유인 장기현 영가, 경주유인 최숙희 영가, 김해 유인 김선녀 영가, 전주이씨 수자 영가 (이용수 기부), 경주 최씨 수자 영가 (최형부 기부), 경주유인 최숙희 영가, 전주유인 최칠순 영가.

## 법회소식 NEWS

- 불기 2551 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 일년 연등 및 일년 영가 연등 모연을 해주신 불자님들은 백련화 김효례, 법륜월 장지영, 법왕자 박계영, 신숙례, 유기화 강유경, 손수덕, 박홍화, 김효진, 강예자 불자님들 이십니다. 연등 불사 모연을 앞장서서 담당 하셨던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덕분에 불국사 창건 이래 가장 많은 일년 연등과 일년 영가 연등 기도를 부처님전에 공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불기 2551 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법요식 당일 날 및 봉축 7 일 기도 입재를 위해 꽃, 떡, 케익, 과일, 음식 등을 준비해 주셔서 성황리에 봉축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참해주신 많은 불국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셋째주 일요일에는 전법기도 법회날 로써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탐구” 가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탐구”가 아쉽게도 쉬었지만 이번달에는 교리탐구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 5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7 번 기유생 명노훈, 335 번 정미생 문창영.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주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5 월 한 평 불사 동참자: 김명관, 김명석  
 에어컨디션 : 이 혜경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